

순창 블루베리 분양농장 호황

올해 180호 운영... 수확철 맞아 매주 600명 이상 방문

순창군의 블루베리 분양농장이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농·특산물 홍보는 물론 관광객 유치까지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군은 올해 블루베리 수확기가 시작되면서 지난주부터 주마다 600명 이상이 분양농장을 방문해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군 블루베리는 6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해 앞으로 방문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군측은 예상하고 있다. 블루베리 분양농장에 사람이 몰리면서 순창블루베리에 대한 홍보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방문객들이 블루베리를 수확 한 후에는 인근 강천산이나 고추장 민속마을에 들러 관광도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올해 순창블루베리 분양농장은 분양신청개시 30여분만에 마감이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으며 180가구에 분양돼 도시민들의 텃밭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순창의 블루베리 농장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신선한 블루베리를 직접 따보는 체험의 재미는 물론 시중에서 구입할때 보다 훨씬 많은 블루베리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1분양농장에서는 60kg, 2분양농장에서는 40kg, 3분양농장에서는 20kg 이상씩의 수확을 예상하고 있다. 분양농장 분양가는 1분양농장 15만원, 2분양농장 13만원, 3분양농장이 10만원이었다. 현재 시장에서 블루베리 1kg 당 18,000원 정도 선에서 거래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분양가가 당 36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블루베리를 수확하는 셈이다.

블루베리 2농장 45호 농장주 광주광역시 이모씨는 "블루베리 분양농장에서 아이들과 체험도 하면서 맛있고 신선한 블루베리를 수확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면서 "오늘 10kg을 수확했는데 블루베리 상태가 아주 좋다. 내년에도 꼭 신청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군 측은 블루베리 분양농장 사업이 성공을 거둬야 분양농장을 더욱 확대해 농특산물 홍보 및 지역경제 견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의회는 27일 군의회 회의실 1층에서 제8대 의회 당선인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제8대 임실군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임실군의회는 27일 군의회 회의실 1층에서 내일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8대 의회 당선인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의원 및 직원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의회 기본현황 안내, 2018년 하반기 의회운영 계획, 지방의회 운영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 설명으로 진행됐으며,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본회의장 등 의회청사 및 시설물을 둘러봤다.

특히, 자리를 함께한 전 의원들은

"제8대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4년 임기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제8대 임실군의회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8명이 선출되었으며, 당선거구에 신남근·황일권 의원, 나선거구에 신대용·장종민 의원, 당선거구에 이성재·김왕중·이명로 의원, 비례대표는 박영재 의원이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흑염소 산업 사육기반 조성 앞장

총 사업비 1억4000여만원 투입

임실군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는 흑염소 산업 육성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 1억4000여만원을 투입, 사육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흑염소 식당 5호점을 개점했다.

군은 올해 임실 흑염소 식당 4호점(관촌면 사선정)의 문을 연데 이어 5호점(임실을 낚지왔소)을 연달아 개점하면서 흑염소 산업 육성에 탄력이 불고 있다.

특히 관내 축산업 등록을 한 흑염소

농가에게 우량 수컷소와 아연 농염망울터리, 환풍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흑염소 농가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하여 흑염소 산업 육성에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임실 흑염소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흑염소 육성은 사양관리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양질의 흑염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심 민 군수는 "흑염소 연구회를 중심으로 흑염소 산업을 적극 육성시켜서 지역내 또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집단급식소 관계자 50여명 위생교육

순창군은 지난 26일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사회복지 시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취약 시설의 급식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식중독 예방에 나섰다.

이날 교육은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50여명이 참여했다.

강사인 전남과학대학교 한도연 교수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특성과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참석자 모두가 식중독 예방요령을 쉽게 이해하게 되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국민연금공단 협업 신중년층 노후준비교육

오늘까지... 건강장수연구소 60여명 참여

순창군과 국민연금공단이 손을 잡고 진행한 참여형 노후준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신중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60여명의 신중년이 참여했다.

신중년이란 최근 전통적인 할아버지 할머니상을 벗어나 '더건강하고 더 똑똑해진' 50 ~ 64세까지의 연령대 사람들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특화된 노후준비교육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춘 순

창군이 주최하고 국내 최고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곧 노후를 맞이하는 신중년층들에게 자신감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참여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3박4일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은 내만의 콘텐츠로 그리는 노후, 노후준비서비스 제대로 체험하기, 같은 세대와 어울리는 시간, 이계호 교수의 건강특강 등 참여자가 직접 만드는 콘텐츠로 채워졌다.

특히,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가족과 일에 밀려 미처 살피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80세 황안나 도보여행가의 유쾌한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선배작가 특강으로 인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노후 준비서비스 제대로 체험하기 시간에는 노후준비 상태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별로 진단 후 개인별 결과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강의와 더불어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 및 고추장체험 등 다채로운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순창의 자연과 특색을 느낄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생 후반기에 직면한 참여자 전원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순창의 체류형 노후준비교육과 국민연금공단의 107개 시사의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모델로 협업시스템의 가능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과 국민연금공단이 손을 잡고 참여형 노후준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매아리

8월부터 남원 주거급여 사전신청

남원시는 2018년 8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현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58만원)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신규대상자들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서 변경된 주거급여에서는 신청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선정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는 소득·재산조사에 포함된다.

사전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8월부터 받는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시, 염소 FTA 폐업 지원

남원시가 한·호주 FTA 이후의 염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FTA 피해보전사업은 염소 농가들에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농가보호 및 축산경쟁력향상을 도모한다고 27일 밝혔다.

본 사업은 7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한·호주 FTA 발효일(2014. 12. 12.) 이전부터 염소를 20두 이상 사육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도 되어 있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염소농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하락하는 염소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마리(2017년 출하 마릿수)당 1,062원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조정계수는 10월 중 확정되며 예산대비 신청한 농가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제사업은 염소 가격 하락으로 더 이상 사육이 어려워진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마리(2017년 출하 마릿수)당 5만3,000원이며 3년치를 지원한다.

폐업지원금 수혜자는 향후 5년간 염소 사육이 제한되며 폐업 지원에서는 타인도 염소사육이 불가하다.

/김재훈 기자